

Michael Stubbs
*Discourse Analysis: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83, xii+272 pp.

黃 迪 倫

言語學이 人間言語能力의 究明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한, 分析과 記述의 最大單位를 文章(sentence)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한 文章의 文法的 分析에서도 文章單位를 넘는 言語的 脈絡과 言語外的 脈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1970년대 이래 'discourse analysis'라는 것이 言語學 및 그 밖의 言語와 관련된 學問分野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談話分析(discourse analysis)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로 행해졌거나 글로 쓰여진 텍스트(text)가 갖는 超文章의(suprasentential) 言語構造를 찾아 記述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Coulthard 1978: 22). 그러나 오늘날 이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관심의 초점이 조금씩 다른 여러가지 연구가 'discourse analysis'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좁게는 관심의 초점을 여전히 個篇文章에 둔 채, 어떠한 文章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특정의미로 쓰이게 되는 경위를 밝히고, 텍스트나 主題(topic)적인 要因이 어떻게 한 文章內에서의 삭제가능성, 照應語(anaphora)의 선택 등에 制約要素로 作用하는가를 알아보는 일에서부터, 社會言語學, 心理言語學, 言語哲學, 電算言語學(computational linguistics) 등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多樣한 연구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회언어학자들은 실제로 행해진 對話(conversation) 속에 나타나는 社會交流構造(structure of social interaction)의 규명에 주안점을 두며, 心理言語學者들은 사람들이 글이나 말로 된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言語理解(language comprehension)에 관한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言語哲學이나 形式言語學(formal linguistics)에서는 한 構成體를 이루는 一聯의 文章들과 그것들의 統辭的 具現(syntactic realization) 間의 意味論的 關係를 밝히기 위하여, 電算言語學에서는 談話過程(discourse processing)의 모형을 얻기 위하여 談話分析을 하는 것 등이다(Brown and Yule 1983: viii).

여기 소개하는 Stubbs의 책은 그 序文에서 Trudgill이 말했듯이 아직 日淺하여 산만하고 단편적인 談話分析分野에 理論的인 一貫性을 부여해 보려는 첫번째 試圖中の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英國의 Basil Blackwell 社가 Language in Society 라는 기획물로 출간하고 있는 일련의 책 중 네번째 것이며, 책의 副題에도 明示되었듯이 사회언어학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다. 실제 대화장면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주된 데이터로 삼았으며, 社會的 脈絡속

에서의 言語使用이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고, 分析과 記述에서 社會學, 人類學的인 통찰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文章범위를 넘은 차원에서의 言語組織의 研究를 위한 言語學的인 分析이 支配的인 것으로서 Gumperz(1982)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모두 해서 5部 11章으로 되어 있는데 第一部 序論에서 關聯된 用語의 定義, 談話分析의 可能性, 現況, 言語學 및 社會言語學과의 關係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2, 3, 4章에서는 談話分析의 여러 가지 接近法을 개관하고 이들이 다루어야 할 記述的, 理論的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5, 6, 7章에서 記述模型의 성격, 言語學理論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談話分析에 適用하는 可能性 등을 다룬 뒤, 8, 9장에서는 自然言語分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言表(utterance) 속의 間接性深度(depth of indirection)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 책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장에서는 이런 ‘間接性’의 개념이 문학작품의 분석과 이해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例示하고, 마지막 11장에서는 談話分析을 위한 자료수집에 관한 理論的, 實際的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章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二部, 즉 2, 3, 4章에서는 談話分析의 세가지 接近法을 다루고 있는데, 첫번째 것(2章)은 실제로 일어난 對話를 상세히 記述한 것(transcript)을 자료로 놓고 그것이 보이는 表面組織(surface organization)과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3章)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되 言表(utterance)의 表面形式보다는 그것들의 深層的인 機能(underlying function)을 규명하기 위한 ‘ethnographic approach’이다. 세번째 것(3章)은 統辭論이나 意味論만 갖고는 설명하기 힘든 言語의 局面을 談話現象으로 설명해 보려는 것으로서 순수언어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章에서는 우선 對話라는 것이 되는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분석이 가능한 組織構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話者가 對話의 構成自體에 관해 언급하는 metatext의 言表(oh, by the way...; before I answer that..., 등)를 쓰며 談話連結(discourse sequence)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등의 이른바 談話能力(discourse competence)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p. 17)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Excuse me. My name's Mike Stubbs.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apology+identification+request for directions)라는 담화이음이 잘못된 것이 話行들(acts)간의 이음순서나 共起關係(co-occurrence) 잘못으로 보느냐 아니면 話行과 그것이 쓰인 사회적 상황의 組合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다음으로 저자는 대화가 이어지고 유지되는 談話粘着(discourse cohesion)의 메카니즘으로서 聽者交替, 時相의 同時化, 語彙反復 등을 들고, ‘이야기’의 전반적 構造로서 ‘始作’, ‘中間部’ 및 ‘終結部’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은 guess what?...; y'know what?...; that reminds me... 등의 序頭表現, still, that's life; well, the way it goes 등 새로운 정보내용이 거의 없는 이른바 cliché-cum-proverb의 終結表現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談話의 기본구조를 대화자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質問—應答(QA)’의 반복이나 ‘開始(Initiation)—反應(Response)—피드백(Feedback)’의 교환형식으로 잡고 많은 談話形式을 이들 중 하나의 變形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물론 보다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先驗的으로 立證되어야 할 문제이다.

談話分析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分析과 記述의 기본단위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Hymes의 'speech act', Labov, Sacks, Jefferson 등의 'utterance', Sinclair, Coulthard, Ashley 등의 'move' 등이 그 예이다(Coulthard 1978: 23). 이 책 2章에서의 주목적이 對話가 갖는 組織性을 그 表面構造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밝혀볼 수 있음을 例示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피했는지는 몰라도 分析單位의 문제가 이章에서 다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章에서는 'ethnographic approach'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 마디로 해서 談話의 표현 구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특정한 對話事例(speech event)를 연구함으로써 言表들이 갖는 機能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방법은 言表들이 대화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정기능들을 우선 생각해본 후 이런 기능들이 어떤 言表들에 의해 具現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章에서는 學校授業이라는 談話事例를 中心으로 이를 例示하고 있다.

授業이라는 對話狀況에서의 教師의 話行에서 두드러진 기능은 정보전달, 설명, 정의, 질문, 수정,鼓舞, 명령, 요구 등이고, 특히 對話監督機能, 즉 커뮤니케이션樣相 자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이라 전제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注意喚起, 말의 量統制, 理解確認, 要約, 定義, 評價, 修正 등의 機能을 확인하고 데이터 속의 言表들을 이들 기능에 따라 분류 제시하고 있다.

이는 Hymes 등이 言語機能과, 言語行爲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했으나 實際談話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서 進一步한 것이며 앞으로의 談話分析, 특히 社會言語學에서의 談話分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例示된 바가 Sinclair and Coulthard(1975)의 연구결과를 크게 넘어선 것인지는 의문이며,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pp.61~62) Sinclair and Coulthard가 談話記述方法의 適切性判別을 위해 제시한 네가지 基準에 비추어 볼 때 몇가지 중요한 未備點을 안고 있다. 그것은 첫째, 記述에 쓰이는 範疇(descriptive categories)의 數는 한정되어야 하는데 저자의 분석에서 제시된 分類範疇 외에도 다른 有關한 範疇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言語가 수행하는 기능에 분명한 제한이 있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언어의 기능적 분류가 당연하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言表의 機能에 치중한 나머지 그런 기능을 具現하는 言語形態에 대한 정확한 記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째로는 記述體系가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다루기 거북한 점들을 무시해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특정기능만을 택함으로써 매우 선택적인 기술이 되었다는 것이며, 네째는 言表의 機能들을 個別的으로 기술함으로써 담화 전체와 연관짓는 일이 소홀히 되었다는 점이다.

4章에서는 英語의 특정 副詞, 接續詞, 不變化詞(particles) 등이 갖는 局面中 순수언어학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說明이 談話分析으로 가능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What time is it? 에 대한 답으로서 *Well, two o'clock. 이 不適切함은 言表序頭에서의 well은 一般的 導入機能(Well, what shall we do?)이나 談話を 차단하고 主題를 바꾸는 機能中的의 하나를 갖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I'd like some more pudding, please. Can I have some more pudding, please? Give me some more pudding, please. *He ate more pudding, please. *Would you like more pudding, please? *Give me more pudding or I'll hit you, please. 등에서 보는 please의 分布制約은 순수 統辭論으

로는 설명할 수 없고 please와 話行의 機能範疇間의 共起制約(co-occurrence restrictions)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言表의 統辭構造가 어떻게든 그것이 ‘要請’의 기능으로 쓰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연 언어속의 and, if, because 등 접속어가 보이는 樣相들을 예로 들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不變化詞, 副詞, 接續詞 등이 갖는 특정 樣相들은 文章 또는 그보다 큰 언어단위의 統辭的 連鎖(syntagmatic chaining) 관계로 설명해야 되는 데, 많은 경우 이를 위해 統辭, 意味論的 單位를 話行 등의 機能的 單位로 再分類해야 한다는 것이다. 統辭的 連鎖에 관한 사실들은 discourse는 clause 위의 位階(rank)가 된다는 주장을 낳으며, 再分類과 관계되는 사실들이 言語學的 記述에서 談話가 統辭보다 한층 위의 層位(level)가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한층 더 전개하기 위해 저자는 第三部 5, 6, 7章에서 談話連結(discourse sequence)의 適格性(well-formedness), 對話交流(conversational exchange)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

5章에서는 談話의 分析和 記述을 위해서 線條的 連結(linear sequence)의 制約要素로서의 ‘構造(structure)’의 개념, 談話의 一貫性(coherence) 여부를 판별케 하는 ‘適格性(well-formedness)’, 對話參與者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豫測性(predictability)’ 등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순수언어학에서 音韻論, 統辭論研究를 위해 개발한 개념, 특히 體系(system)와 構造(structure)의 개념을 실제로 일어난 대화의 담화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문제는 Hymes나 Labov 등이 되풀이해서 주장한 바와 같이 순수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이 궁극에 가서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談話의 體系的, 構造的 組織性을論하기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담화의 차원에서 well-formed, ill-formed의 개념이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對話에서 You didn't answer my question. He didn't say 'hello'. He never sticks to the point.와 같은 말이 나오거나, 교사가 학생이 쓴 글에 일관성(coherence)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등은 話者가 談話의 連續構造의 適格性에 대한 판단력(intuition)을 갖고 있다는 일차적인 증거가 된다. 理論的 次元에서의 ‘well-formedness’의 개념은 修正可能(corrigibility)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담화행위에서 참여자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대화도중에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을 보아 담화차원에서 well-formedness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豫測性(predictability)은 統辭的 連鎖에서 한 要素가 다른 要素들이 일어날 可能性에 대한 豫測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談話’次元에서 이런 豫測性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立證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사실들은 談話에 構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構造가 명백히 言語的인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저자는 一聯의 言表들 사이의 관계가 統辭的인 것이냐, 意味論的인 것이냐 아니면 話用論的인 것이냐의 문제를 7章에서 다루고 있다.

7章에서는 對話交流(conversational exchange)의 조사를 통해 談話單位들간의 統辭的 連鎖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의 最少單位를 交流(exchange)로 잡고 交流의 가장 간단한

構造를 IR, 즉 한 話者에 의한 開始(Initiation)와 이에 대한 다른 話者의 應答(Response)으로 본다. IR의 대표적인 예는 QA(question-answer)인데 이 관계에서의 制約要素는 순전히 統辭的이라기보다 意味的이고 話用論的이란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장한다. 즉 yes-no question에 대한 답으로 Chance would be a fine thing. Don't make me laugh!가 올 수 있으며("no"의 具現으로), X-question에서 통사적으로 볼 때는 물음이 Where로 시작되면 답에 place adverbial이, When이면 time adverbial이 와야 하는데,

Q: When did this happen? A: In the pub.

Q: Where's Harry? A: He's not well today.

등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예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交流는 하나의 情報單位라 볼 수 있는데 開始(initiation)가 특정한 命題의 틀을 설정하고 어떤 言表이든 이 命題를 完成하는 기능을 하면 그것이 應答이 되어 그 交流의 한 부분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交流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Initiation에서 選擇自由(option)가 점점 줄어드는 것, 즉 豫測性이 점점 높아지는 Response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交流가 進行됨에 따라 나타나는 豫測性的의上昇은 統辭上的의 省略(elliptic syntax)으로 具現된다. 따라서 交流는 統辭的으로는 省略可能性的의 連鎖(sequences of ellipticity classes)로, 意味論的으로는 命題的 틀(propositional frame)과 그의 完成이라 定義할 수 있다.

7章에서 저자는 5章과 6章을 잇는 주제, 즉 對話交流는 豫測的 構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더 상세히 論하면서 Birmingham Approach를 이용, 談話分析에서의 形式化(formalization)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선 表記規約으로 이미 설정된 I, R, 외에 F(Feedback), I_r(Re-initiation), Inf(Inform) → (Predicting; non-terminal), ← (Predicted; non-initial), ↔ (Predicted and Predicting; medial), n(recursion), [](exchange boundaries), () (optional items) 등을 설정한다. 이어 답화의 最少構造를 $\overline{[IR]}$ 로 잡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의 가설검증을 거쳐 $\overline{[IR(F)]}$, $\overline{[I \overline{R/I}(F)]}$, $[Inf(F)]$, $\overline{[I \overline{R/I}^n \overline{R(F^n)}]}$, O(pening)과 C(close)를 추가한 [OIR] [IR I_r RFC] 등의 構造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談話構造記述을 形式化하는 가능성을 강력히 示唆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 하겠다. 다만 서로 연결된 둘 또는 그 이상의 交流單位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밝혀 記述하기 위한 大單位構造(macro-structure)의 설정이 숙제로 남는다.

8章에서는 談話속에 내포된 間接性的의 深度, 즉 言表가 갖는 命題的 意味와 그것이 脈絡속에서 수행하는 話行의 機能 사이에 깔린 여러 개의 意味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談話의 一貫性(coher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表面的인 語彙, 統辭的 粘着性(cohesion) 뿐 아니라 話行, 특히 間接話行(言表의 言表內的 効力(illocutionary force)이 恭遜이나 緩和標示로 塗布된 것), 言表內的 効力의 脈絡依存性, 특정 話行들의 連鎖가 가져오는 결과 등을 설명해야 한다. 既存 話行論은 談話의 脈絡에서 孤立된 個個의 話行을 中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連結된 話行들이 談話內에서 갖는 內部的 機能을 알아보기 위해 談話行(discourse act)이란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어, 교실에서 教授가 학생에게 You might be interested in having a look at

X's article on this. 라고 했을 때 이는 대개 要求나 命令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순수한 '제안'(suggestion)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A: Are you coming to the pub tonight?

B: I've got to work.

에서 B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no"의 뜻이 되나 B가 barman인 경우에는 "yes"의 뜻이 된다는 등의 예를 들어 話行의 機能은 談話脈絡속에서의 話者들간의 社會的 役割(role)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주장을 편다.

9章에서 저자는 많은 경우 對話構造는 談話의 表面에 나타난 語彙와 統辭의 局面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많은 例로 立證하지만 저자의 궁극적 주장은 談話連鎖가 갖는 一貫性을 表面的 粘着性(surface cohesion)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言表가 수행하는 基底話行(underlying acts)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는 談話連鎖속의 一部로서의 話行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이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談話分析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즉 "how the functional categories are realized by formal items—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quest' or 'question' and the grammatical options available to the speaker" (Coulthard 1977: 8)에 대한 시원한 답은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談話分析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부분적이나마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으며, 산만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온 談話分析에 理論的인 一貫性을 부여해 보려고 시도한 力著로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ulthard, M. (1977)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Longman.
 ——— (1978) 'Discourse Analysis in English—a Short Review of the Literature,' in Valerie Kinsella, ed.,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s: Surve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mperz, J.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nclair, J. McH. and M. Coulthard (1975) *Towards an Analysis of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151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접수 : 1984. 11. 11)